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ecessity for Piano Early Education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화 영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혜 경

위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20 2007-0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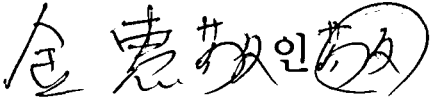
음악교육전공

기 화 영

이화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2
II. 이론적 배경	3
1. 조기 음악 교육의 의의	3
2.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	4
3. 인지발달 이론으로 본 음악적 성장단계	7
4. 음악 교육가들의 음악교육 방법	12
III. 피아노 학습과 음악교육과의 관계	20
1. 조기 피아노 교육의 목적	20
2.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	21
IV.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과적 지도방안	22
1. 피아노 조기교육을 위한 조건	22
2. 피아노 조기교육의 올바른 지도방안	26
V. 결론	39
참고문헌	41

그림 차례

(그림 1)	20
(그림 2)	30
(그림 3)	30
(그림 4)	32
(그림 5)	32
(그림 6)	33
(그림 7)	33
(그림 8)	34
(그림 9)	34

표 차례

<표 1>	14
-------------	----

ABSTRACT

Study on Necessity for Piano Early Education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Lee Hwa-young

Advisor : Prof. Kim Hye-kyong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first to emphasize the need for early piano education and then to suggest effective piano teaching skills. The range of proper ages for early piano education is limited between age 4 and 7 in this paper when a rapid growth is made in a physical and mental way. Moreover, this period is considered proper for early music education by many music educators including Zoltsh Kodaly.

For the thesis, a great number of technical books and documents in related fields such as early music education and piano education were researched, and the writer's own experiences in piano teaching were also reviewed to get some ideas on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early music education, recommended music education ways, the purposes and needs for early piano education, various conditions for early piano education, and how to choose good piano teaching materials and use them,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through right piano education, children come to understand and express music properly, and can live a emotionally rich life. It also helps them establish a right sense of value and form a good charact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향상과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관심이 아동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고 예체능 분야 중 음악교육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조기 음악교육은 아동들의 정서발달과 창의성 계발,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교육면에서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음악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해 조기에 발달되기 때문에 유아기에 음악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만일 어린이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체계적인 음악적 소질을 제공해 줌으로써 더 큰 음악적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기 음악교육은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음악교육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음악적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기 음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음악교육에 있어서 피아노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피아노는 관현악기나 타악기 등 다른 악기에 비해 기초적이고 대중적이며 보편적이어서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보다 건반과 악보를 보기가 수월해서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피아노는 다른 악기에 비해 음역이 넓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며 고정악기이며 멜로디, 화성, 리듬 즉 음악의 3요소를 고르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다. 피아노는 오른손과 왼손, 페달 등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감각기능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지적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악기이다. 이와 함께 피아노는 화성악기이며 선율악기여서 올바른 피아노 교육은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피아노 교육이 대중화, 보편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아동들의 자기 능력 과신,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아동 개개인에 맞지 않는 교육 방법의 선택으로 인한 거부감은 오히려 아동들에게 싫증과 피아노 학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음악 자체를 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유아들의 성장 특징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음악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피아노 교육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피아노 학습에 있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음악교육면에서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때 아동 개개인에 맞는 피아노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흥미를 갖고 피아노 학습을 하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각종 전문 서적과 문헌, 피아노 교육에 관한 선행 논문과 본 연구자의 피아노 교습 경험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음악학자들은 피아노 학습에 있어 조기 교육의 대상을 4세부터 11세의 어린이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빠른 4세부터 취학 전인 만 6세까지의 어린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기 음악 교육의 의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비사회적이기는 하나 발달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초기 음악 교육은 아동의 창의력 개발과 개성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아동기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기는 하나 가정에서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아동을 계획적으로 보육하는 장소인 유치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음악의 교육면에서도 아동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성장에 중요한 요인인 음악성 혹은 음악적 제 기능은 감각이나 지각 등 신체 기관의 종적인 반응과 감정이나 지적 기능 등 정신작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동기에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교육은 아동의 창조성과 개성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음악교육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소리를 탐색하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음악의 근본 요소들에 대한 능력을 진단하여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함으로써 아동의 창조성과 음악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²⁾

또, 오늘날은 인간이 지녀야 할 어떤 면의 능력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능력을 고루 지니도록 하여 말하자면 「전인적 인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음악에는 단지 감정적 능력의 훈련에만 그칠 수 없는 보다 넓은 교육적 지능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초기 음악 교육은 인간성 배양과 음악의 예술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한편, 음악인으로서의 실질적인 능력을 중시하고 음악성을 발달시켜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초 능력의 함양에 바탕을 두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위한 정서 교육

1) 류덕희, 「음악 교육학개론」, 서울 : 학문사, 1973, p.169

2) Barbara L. Andress, Music in early Childhood(Washing D. 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73, p.2

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음악미의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³⁾

2.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

루소⁴⁾는 “인간의 교육은 출생과 동시에 시작된다.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아기는 벌써 교육을 받고 있다. 아기가 유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에는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고 말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교육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화이트(Button I. White)박사의 “태교는 태아의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는 말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더 없이 강조하고 있다.

E. Goden⁵⁾은 모든 지식의 흡수력이 최고조인 유아부터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너무 늦게 음악을 시작하여 음악을 일상생활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때문에 유아들이 언어를 배울 때 읽고 쓰기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부터 배우듯이 음악교육도 음을 읽고 쓰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Zimmerman은 “음악학습은 지각과 더불어 시작하고, 이러한 지각으로부터 음악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형성된다.” 고 하였다.

Joseph Hoffman은 “모든 음악적인 훈련을 쌓은 시기는 유아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며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보다 빠른 연령에서 올바른 음악교육만 쌓으면 훌륭한 음악가로 대성할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

3) 김문희, “음악교육 이론을 위한 조기 피아노 교육과 그 지도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5.

4)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소설가.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5) 미국 템플대학에 재직 중인 고든(E. Gordon, 1927 ~, 미국)은 음악 소질에 관한 연구와 음악학습이론, 유아음악교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20세기 최고의 음악교육학자중의 한사람

6) 월간 「피아노 음악 11월호」 (서울: 음악춘추사, 1998), p.146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헝가리의 음악교육가인 코다이(Kodaly)는 4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기야말로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붙여넣어 주기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확신하였다.⁷⁾

이처럼 음악교육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미숙하나 흡수력이 빠르고 인격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인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적인 능력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바람직한 환경을 통해 개발해 줌으로써 재능을 나타내게 되고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생활화된 음악적 환경에서의 훌륭한 교사와 부모의 협력 속에서의 조기 음악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블룸(B.S. Bloom 교육학자)⁸⁾은 “지능은 1세에 20%, 4세에 50%, 8세에 80%, 13세까지 90%가 완성된다” 고 하였으며, 웨슬러-바릴(Wescheler-Baller)과 켈스톤(Thurstone)연구도 “지능 발달은 그 50%이상이 0-6세까지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또한 피아제(Piaget)는 후일 모든 인지의 하부구조일체와 정의적 반응을 결정하는 태반의 반응을 이 시기에 형성한다며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 음악가들의 유년기를 살펴보면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한 연령을 보면 유아기는 48%, 아동기가 30%, 청소년기가 22%로 유아기의 비율이 매우 크며 유아기 아동기를 합한 비율은 78%로 청소년기의 2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준다.⁹⁾

유아기에 좋은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서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을 가까이 접하여 폭넓은 음악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음악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유아에게 음악지도를 하는 것은 전인교육¹⁰⁾의 한 단계로써 음악을 통하여

7) 조흥기(역), Erzebet Szony 「코다이 음악 교수법」, 1994, p.44

8) 미국 교육심리학자, 시카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평가받고 있음.

9) 류수경,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지도 방법”,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2, p.17.

10) 전인교육이란 인간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및 사회적 특성 등을 고루 다 갖춘 인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분야에만 편협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육접근 방법을 통해 정신적, 심미적,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열린 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음악은 생활 그 자체이며 아동의 총체적 발달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

삶의 초기부터 아동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리들과 풍성하고 질 높은 음악적 경험은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아동들의 삶을 의미 있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조기음악교육의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기억 능력이 개발된다. :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 지에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으로 음악교육을 받으면 성장 후 언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된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음악교육은 지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가의 경우 언어기억능력을 판장하는 뇌의 좌측 측두평면이 일반인보다 더 발달한다고 한다.

·좌뇌, 우뇌가 고루 발달한다. : 우뇌는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사고를 맡는 곳으로 아이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쁨, 슬픔, 벽참, 따사로움 등 다양한 정서를 체험한다. 또 다양한 리듬과 속도로 구성된 음악을 들으면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언어획득 능력도 빨라진다. 적절한 음악 환경은 좌뇌 개발에도 효과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좌뇌 발달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험한 결과가 이를 말해 준다.

·연주 능력 외에 다양한 능력이 개발된다. : 다양한 리듬, 박자로 구성된 음악을 듣고 배운 아이는 감성이 발달하고 언어 능력, 기억력, 집중력, 창조력, 인내심, 협동심 등을 보다 빨리 계발시킬 수 있다.

·음악은 아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 아동의 음악교육은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언어 표현에 서투른 아이들은 피아노를 치면서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외에도 음악은 그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의사소

11) 이견우, 이순영 공저, 「유아음악교육」, 배영사, p.16.

통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¹²⁾

조기 음악교육은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음악연주를 통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조기음악교육의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구체적이고 아동 개개인에 맞는 전문적인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3. 인지발달 이론으로 본 음악적 성장단계

인간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이론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성장과 학습에 관련되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그 길이 멀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소 그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공통된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것과 개인의 성장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¹³⁾

인간은 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생기는 비교적 지속적인 유기체의 행동변화로써 인지과 정서의 후천적 형성인데 발달은 심신의 형태와 재능의 상승적인 변화과정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말한다. 그 변화는 후천적으로 진행되지만 선천적인 경향성을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은 학습의 가능성과 방향 그 수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중 음악의 교육에 관련된 이론은 인지적¹⁴⁾ 능력 발달 이론이라 하겠다.

1950년대 이후로 아동심리학자와 그 이외의 학자들은 스위스 심리학자인 피

12) 허은진 “아동기 조기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4, p.7-8.

13) 박영신, 「아동사고의 발달」, 교육과학사, 1993, p.83.

14) 인지란 감각적 자료를 해석하고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시켜 주고 사고, 추리, 문제해결 등에 이용하여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아제(Jean Piaget)를 인지발달 분야의 대표적인 공헌자로서 인정했다. 피아제를 중심으로 발달된 인지발달 영역에 대한 연구는 음악 교육학적 분야에서 우리들에게 충격과 흥분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인지 발달론에 대한 아동기의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인지 발달론과 교육과의 어린이들의 음악적인 개념 획득과 과정 등을 통해서 학습방법에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다주어 보다 높은 음악교육의 성과를 높이며 인성 발달에 그 이론적 바탕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⁵⁾

짐머만은 피아제의 연구가 어린이의 개념발달 성장에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피아제는 개념발달을 ‘보존’ (conservation)이라는 견지에서 보는데, 이것은 자극의 분야가 변화하더라도 특정한 자극의 불변하는 속성을 보유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보존이란 어린이의 현실을 지각적으로 지배하는 관점으로부터 개념적 관점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 성장과정을 통해 추적될 수 있다. 피아제의 보존의 원리를 음악적 사고의 발달에 응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아제의 보존의 개념과 지각과 개념의 형성 사이에는 개념이 명확한 ‘이미지’ 혹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 얻은 어떤 것에 대한 사고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각 개인이 음악적 아이디어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본질이 되는 개념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피아노 학습에는 매우 중요하다.¹⁶⁾

그런 의미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은 교육자들에게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주는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린이들의 발달 이론과 관련하여 수행된 음악적 성장에 관한 연구와 실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피아제와 부르너¹⁷⁾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¹⁸⁾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인지 발달단계에 맞춰 학습

15) Gad. c.v. et. al, <Introduction to Education Research>N.Y. Appletion Century-Crofts, 1963, 김종서, 「교육연구의 방법」, 배영사, 1982.

16) 맥스 W.캠프, 「피아노 연주법」, 안미자(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57.

17) 부르너는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으며,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에 기초하여 EIS 이론을 제안하였다.

18) 이철구, 이양 공저, 「심리학으로 본 음악교육」, 교육과학사, 2001, p.95.

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아동들이 음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배우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음악교육은 이러한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단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단계를 무시한 학습은 학습효과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인지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에 의한 학습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다.¹⁹⁾

1) 감각운동기 (sensorimotor period) : 0~2세

영아기는 신기하고 놀라운 시기이다. 영아는 기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이와 반대로 예상치 못한 행동의 결합을 보이기도 한다.²⁰⁾

피아제는 감각운동기의 발달에 관해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제시된 연령 기준은 대략적인 것이다. 둘째, 피아제의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셋째, 피아제는 영아의 발달이 점진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넷째, 피아제에 의하면 각 단계의 특징적 행동들은 영아가 다음 단계에 도달하여도 사라지지 않는다.²¹⁾

이처럼 감각 운동기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음악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시기에 운동신경, 근 감각 등과 함께 아기의 청 감각도 발달하기 때문이다. 청 감각은 귀의 물리적 기능으로서의 단순한 청력의 차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음 현상의 특징을 분별하는 청각적 내면 작용을 뜻한다.

아기는 생후 2개월경부터 사람의 소리, 특히 엄마의 소리에 반응하며 5개월을 전후하여 음악을 듣고 느낌을 몸짓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청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기의 청 감각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영아의 음악적 체험은 흔히 부모의 품안에서 음악적인 느낌에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아기가 부모와 함께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소

19) 유기섭, 「교육심리학」, 동문사, 1993, p.63.

20) 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r 공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김정민 (역), 학지사, 2006, p.45.

21) 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r 공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김정민 (역), 학지사, 2006, p.98-99.

리를 흉내내어 보고,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놀이를 통해 음악적 체험을 함으로써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²²⁾

2) 전조작기 (preoperational period) : 2~7세

외부 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 또는 사고를 통하여 환경을 상징적으로 조작하는 단계이며 인간의 지적 발달의 두번째 단계로, 2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사물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과 말을 정신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전조작기 동안에는 인지 발달과 함께 아동의 음악적 능력도 급속히 성장한다.

음악적 능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각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하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소리의 썸여림, 음높이, 음길이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리듬과 가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들려준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부모와 교사가 아동들에게 적절한 음악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면 더 큰 음악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3)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 : 7~11세

양, 무게, 부피 따위의 보존 개념(保存概念)을 이해하게 되고 구체적 사물에 대한 논리적 조작이 가능한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의 자아 중심성에서는 벗어나지만,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아동기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 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동에게 바람직한 음악 체험만 이루어진다면 음악적인 능력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는 단계이다.

또 감정적 측면에서도 회로에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음악적 체험은 감정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단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2) 허은진 “아동기 초기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4, p.15-16.

7세경의 아동들은 음악의 음색, 셈여림,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화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해지므로 리듬과 멜로디의 공부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8-9세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청각이 인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각 기능이 음 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동들은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 놀이나 악보 읽기 및 쓰기 등과 함께 피아노 학습에 필요한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음악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피아노 학습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11세경이 되면 아동들은 집단에의 소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된다.²³⁾

따라서 중창 및 중주 활동, 합창 및 합주 등의 활동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서 아동들의 심리적, 음악적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4)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 : 11~15세 까지

지적 발달 단계에서, 언어나 기호 따위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논리적 사고를 하는 시기이며 11-12세 이후의 시기이다.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지적, 감정적으로 크게 성숙한다. 급격한 신체적인 성숙을 보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추상적 사고력은 성인의 수준에 이르고, 개성이 급속히 발달하며 가치체계가 형성되고, 미래를 위한 목표도 확립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 개개인의 모든 변화하는 특성들을 고려하여 음악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 예술 음악을 통하여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적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감성적·지적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술 음악의 가치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비 예술 음악에만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취를 체험하고 깊은 예술적 감동의 순간을 체험하는 학생들은 평생 동안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 예술음악의 사회적 기능까지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종류의 음악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의미하게 노래만 따라

23)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79.

부르게 하는 음악수업, 악곡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감상과 연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 문화권에 속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²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와 음악교육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하며 발달하는 아동들에게 조기에 부모나 교사가 체계적으로 훈련된 음악교육을 시킨다면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음악적 성숙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4. 음악 교육가들의 음악교육 방법

1) 달크로즈

(1) 달크로즈의 접근방법의 배경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는 음악은 신체적 움직임 즉 손과 팔의 동작 등으로 표현하고 리듬을 실제 몸으로 느끼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달크로즈는 28세(1892년)에 스위스의 제네바 콘서바토리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곳에서 화성학과 솔페즈를 가르치게 되고 이것은 후에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⁵⁾

달크로즈는 실제 수업을 통해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신체적 반응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였다.

음계와 음정, 조성과악, 화음 등을 감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지만 음악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느끼는데 충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민한 청각과 신체적 반응이 결합한다면 놀라운 음악적 능력이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달크로즈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멜로디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과 리듬감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연주할 때 리듬표현이 서투른 것과 잘 듣지 못하는 것, 기술적으로 훌륭한 연주를 하면서도 자신의 감

24)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80.

25) 엄귀연, 「유아음악교육」, 서광 학술자료사, 1992

정을 악기로 통해 전달하는 음악적 표현이 미숙한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의 세 분야를 연계시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독특한 음악교육을 창안해 냈다.²⁶⁾

(2) 음악교육철학²⁷⁾

- ① 음악은 지적이기 이전에 감각적이어야 한다.
- ② 신체 모든 부분이 감각 기관이므로 이들의 발달을 꾀함이 중요하며 음악적 생각이나 느낌은 신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 ③ 듣기 훈련이 모든 음악학습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 ④ 어린이들의 음악적 경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리듬경험과 청각훈련이 있는 후에 악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 ⑤ 어린이 개인의 개인성과 독창성은 극도로 중시되어야 한다.
- ⑥ 리듬, 셈여림, 박자, 속도, 음의 고저, 음의 구성 등 음악의 본질 개념에 대한 가르침과 신체를 통한 이들의 이해 표현에 대한 경험이 중시되어야 한다.

(3) 음악교육방법

① 유리드믹스

음악의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는 달크로즈의 독창적 리듬 교육법을 지칭하는 말이다.²⁸⁾

달크로즈는 리듬은 음악뿐 아니라 모든 예술의 기초이며 원동력이라고 믿고 인간의 삶은 심장의 박동, 숨결등과 같은 리듬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음악적인 리듬은 삶의 리듬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음악지도의 원리가 된다. 그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음악적 요소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신체동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6) 김정화, 「유아음악교육」, 형설출판사, 1994, p.30.

27) 안재신, 「유아음악교육」, 교육과학사, 1996, p.55.

28) 유승지 편저,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I), 태림출판사, 2004, p.9.

〈표 1〉의 음악의 표현법은 유리드믹스의 대표적인 신체동작이다.

〈표 1〉 음악의 표현법²⁹⁾

음악용어	신체동작
아제볼레(Agevole)	가볍게 또는 화장하기(Dad)
스타카토(Staccato)	손끝 튕기기(Flick)
레가토(Legato)	흘러가기(Flost)
포르티시모(Fortissimo)	펀치하기(Punch)
스포르잔도(Sforzando) 또는 액센트(Accent)	뺨치기(Slap)

그는 신체동작과 음악을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상호 관계를 체험하고 즉흥 연주와 창작곡에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② 솔페즈

달크로즈는 계이름으로 노래 부름으로써 음에 대한 의식, 즉 음의 높이를 분별하고 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준다고 생각하여 가창과 음계의 단계를 표시해주는 손의 위치가 솔페즈 학습에 사용되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낮은 도(손을 발에), 레(손을 무릎에), 미(손을 엉덩이에), 파(손을 배꼽에), 솔(손을 가슴에), 라(손을 어깨에), 시(손을 귀에), 높은 도(손을 머리에)까지 한 옥타브로 표현한다.

달크로즈는 고정도법에 의한 방법을 주장하여 계이름을 보고 부르기는 “C음”은 항상 “도”로 부르는 방법인데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절대 음감을

29) 문연경, 「유리드믹스」,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9, p.15.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이 손동작을 학습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한 곡을 통해서 손동작을 익히는 것이며 곡 중간에 교사의 즉흥 연주를 카논³⁰⁾으로 따라 하거나, 게임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③ 즉흥연주

즉흥연주는 유리드믹스와 솔페즈 활동에 절대 필요한 부분으로서 모든 음악 행위가 통합된 상태인 셈이며 음향과 관련되는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결합,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달크로즈의 즉흥연주 지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피아노이다.

이는 피아노가 즉흥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가장 쉽고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흥연주는 주로 사물과 동물에 대한느낌과 감각을 표현하고 자유로운 리듬을 연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달크로즈의 즉흥연주 지도에서 중요시되는 또 다른 측면은 교사가 학생들의 음악적 충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음악 창작의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2) 오르프

(1) 오르프 접근방법의 배경

오르프 접근법은 독일 작곡가인 Carl Orff가 개발한 일반 음악 지도법으로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율동과 즉흥연주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노래, 율동, 이야기가 분리될 수 없는 음악의 기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르프 접근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도법은 오르프 악기의 사용과 즉흥연주이다.

즉흥연주는 오르프 수업에서 항상 실시되는 것으로 이야기, 노래, 기악, 율

30) 카논은 원래 <규칙>,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로서, 중세 이래의 음악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한 모방에 의한 대위법 악곡의 일종을 가리킨다. 14세기에는, 단선성가에서 채용한 정선율(cantus firmus)이 다른 성부에 의해 시종 엄격하게 모방되는 카논풍 푸가(fuga per canonem)라는 악곡이 있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카논으로 발달했다.

동, 몸에서의 리듬표현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르프는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타악기 대신 리듬공부를 하고, 이야기하듯이 말을 구사하여 노래를 만듬으로 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즐겁게 음악을 공부하도록 유도하였다.³¹⁾

오르프의 접근법은 지적이해에 앞서 신체적인 경험으로 음악의 요소를 체득케 하여 음악적 감각을 개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 음악교육철학

Margaret L. Stone은 그녀의 논문(1971)에서 오르프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음악은 나이나 능력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아동을 위한 것이다.
- ② 음악은 즉흥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 ③ 음악적 경험은 일찍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원시적인 아이들의 세계로부터 좀 더 복잡한 발달단계를 거쳐 현재의 음악 수준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 ④ 음악적 경험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얻어진다.
- ⑤ 음악은 놀이, 대화, 동작, 악기의 종합경험이어야 한다.
- ⑥ 음악은 본래 기초적이어야 한다.
- ⑦ 리듬과 멜로디는 음악의 출발점이다.
- ⑧ 비음악적인 아동들은 거의 없다.

(3) 음악교육방법

오르프 교육방법은 연주, 창조, 감상, 분석 등과 같은 음악적 행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오르프는 모든 어린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 자기표현을 위한 음악적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으며 인격형성을 위한 전인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① 말하기

오르프 지도방법에 있어서 언어리듬,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 즉흥연주 및 표현, 오스티나토³²⁾가 있는데 먼저 언어 리듬에 있어서 리듬 교육은 음악교

31)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1986, p.81.

육의 가장 기본이 되며, 말하기는 가장 좋은 리듬 교육의 수단이다. 어린이들은 글을 깨우치기 전에 말을 먼저 배우게 되며, 말, 일상적인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은 교사들에게 중요한 리듬교육의 재료가 된다.³³⁾

②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는 것은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적 경험은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여 점차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이 자신이 목소리를 악기로 사용하여 처음으로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오르프는 5음계를 사용한다. 즉흥연주를 할 경우 노래하기 쉽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표현을 하기에 좋고, 5음계는 반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든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③ 신체표현

신체표현은 음악적 표현과 개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르프의 신체표현은 그 영역이 매우 넓다. 손뼉 치기, 무릎치기, 발 구르기, 손가락 튕기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신체표현이며 걷기, 뛰기, 돌기 등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동작이 모두 기본적인 신체표현들이다. 이러한 신체표현 등을 통해서 셈여림, 빠르기 등 음악학습에도 활용된다. 또한 신체표현은 노래 부르기나 악기 연주에서는 신체타악기로 이용된다.

④ 즉흥연주

오르프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어린이들의 창조성과 독창적인 표현능력의 발달이다.³⁴⁾ 이는 즉흥연주 및 표현활동을 통해서 개발된다. 따라서 모든 음악활동에 있어서 즉흥연주와 표현이 최대한 장려된다. 오르프 악기는 즉흥연주를 위해 최대한 사용되며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위해

32) 어떤 일정한 음형을, 악곡 전체에 걸쳐,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고(音高)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오스티나토는 오르프 교수법의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로서 악곡 전체나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정한 음형을 말한다.

33) 조효임 외 4인,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9, p.14.

34) 김규식, 「재미있는 오르프」, 창지사, 2002, p.14.

집중적으로 이용된다. 즉흥연주는 한 음, 혹은 2-3개의 음을 이용해서 시작하며, 점차적으로 발전된다.

⑤ 기악학습

음악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에서 악기를 필수적으로 보고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데 특히 그가 제작한 악기들을 주로 사용한다.

오르프 악기로는 다양한 크기의 실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펠 등이 있고 후에 플루트와 감바 같은 악기를 첨가하였다.

오르프는 어린이가 음악을 쉽고 자유롭게 접하도록 연주하기 쉬운 악기를 선호하였다.

3) 코다이

(1) 코다이 접근방법의 배경

헝가리 작곡가, 음악교육자이며 언어학자인 코다이(Zoltan Kodaly)는 “음악이 일상적인 경험(daily experience)을 통하여 모국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되어야 한다”³⁵⁾고 하였다.

코다이가 음악 지도 전반에 걸쳐 적용한 원리는 “음악의 모든 개념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학생들의 신체적 음악적 성장단계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체험하도록 제공하는 것”이었다.

코다이는 Bela Bartok와 함께 헝가리의 민요와 민족 음악들을 수집 연구하였으며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시켜 민족적 음악교육을 주장하였다.

또한 코다이는 헝가리 학교의 음악교재들이 모두 독일 음악적이며 내용이 빈약하여 음악교육의 기반인 음악교재의 편찬 및 음악교육 조직을 만들어 코다이 System이라 하고 보다 우수한 교사 양성과 훌륭한 교재 이용,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도 방법의 개선에 헌신하게 되었다.

(2) 음악교육철학

Margaret L. Stone은 그녀의 논문(1971)에서 코다이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음악은 모든 어린이의 것이다.

② 음악은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경험되어야 한다.

35) 원희, 「코다이와 유아 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1994, p.48.

- ③ 음악은 조기교육을 하여야한다.
- ④ 음악언어는 모국어를 배우듯이 익혀야 한다.
- ⑤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악기이며, 합창은 조기교육에 있어 독창과 악기보다 우위에 있다.
- ⑥ 한 국가의 민족 음악과 가곡의 문화적 유산은 음악을 훈련하는데 기본 교재가 되어야 한다.
- ⑦ 음악은 어린이들에게 생활화되어야 한다.
- ⑧ 어린이들에게 명곡만으로 충분하다.
- ⑨ 좋은 교사는 그들 자신이 어릴 적부터 적절히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⑩ 어린이들은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존경과 관심으로써 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3) 음악교육방법

① 리듬감의 지도

코다이는 리듬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각 리듬의 첫 문자와 첫 소리만을 사용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코다이의 리듬이름은 슈베의 의해 고안된 것을 적용한 “리듬음가 음절(Rhythm Duration Syllables)” 방식으로, 리듬이름의 사용으로 실제 박자와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음정에도 이름이 있듯이 리듬에도 이름을 붙여 음악을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도구가 되게 함으로써 음악을 배우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계명창

코다이는 독보력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동도법의 계명창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조가 변하더라도 두 음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므로 좋은 전이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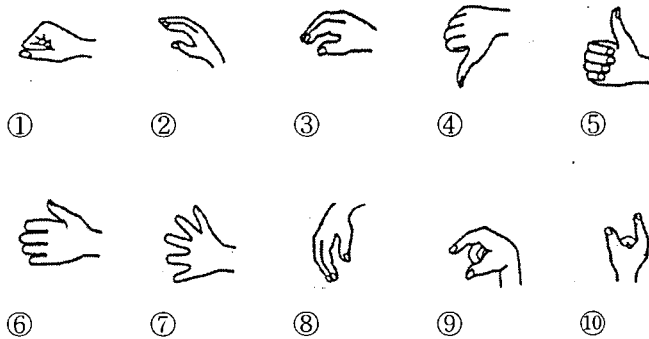
③ 손기호

손기호는 11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인 귀도가 손바닥의 각 마디를 이용하여 계이름을 만든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 후 19세기 중엽 영국의 커웬이 악보의 음표 밑에 계이름을 적은 후 손기호와 함께 지도하면서 오늘날의 손기호 원형이 탄생되었다. 커웬의 손기호에서는 ‘fa’와 ‘ti’가 모두 집게손가락

으로 표시된다. 코다이는 여기에 'fa' 와 'ti' 를 확실히 구분하고 반음들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좀 더 확실하고 기능적인 손기호를 만들었다.

코다이의 손기호는 다음(그림 1)과 같다.

(그림 1)



①도 ②레 ③미 ④파 ⑤피³⁶⁾ ⑥솔 ⑦실³⁷⁾ ⑧라 ⑨타³⁸⁾ ⑩티³⁹⁾

Ⅲ. 피아노 학습과 음악교육과의 관계

1. 조기 피아노 교육의 목적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하는 일이다.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교수방법은 교육의 목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기 피아노 교육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자.

36) '파'를 반음 올린 음

37) '솔'을 반음 올린 음

38) '시'를 반음 내린 음

39) 언제나 으뜸음을 향해 올라가는 성질의 이끔음

“어린이 피아노 교육의 목표”에서 방금주(음악교육학자)는 피아노 조기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연주 기술 영역에 있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한 어린이가 훗날에 전문 예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나 혹은 정서 생활의 한 부분인 취미로써 피아노 연주를 즐기는 경우라도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아동기에 좋은 연주기술 기반을 심어주어 음악적 이해와 더불어 기술신장을 병행 시켜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목표는 감성적 영역에 있어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고 음악예술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관을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성적 영역은 아동기의 피아노 교육목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연주기술과 음악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하였다더라도 피아노를 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교육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음악을 느끼고 사랑함에 따라 감수성이 발달되고 어린이 스스로 피아노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음악적 성장과 음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목표는 인지적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이다. 이 영역은 아동의 음악적 이해, 지식의 발달을 도모하고 청각적 민감성을 확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에 관한 인식과 개념 학습은 창조성의 민감성을 병행 발전시킬 수 있다.⁴⁰⁾

이처럼 세 가지 영역 즉, 연주 기술 영역, 감성적 영역, 인지적 영역 면에서 살펴 본 조기 피아노 교육의 목적은 매우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각 영역의 목적을 처음 피아노를 대하는 어린 시절부터 습득하게 하여 어린이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2.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헝가리 음악교육가인 코다이는 “4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기야말로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붙여넣어 주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확신했으며, 아동의 일생에 결정적인 음악적 경험은 6세에서 16세 사이에 얻어지며 이때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보다 더 음

40) 방금주, <어린이 피아노 교육의 목표>, 상개서, p.40.

악을 쉽게 배우고 재능도 잘 늘어난다고 하였다.

음악교육은 음악성이 연속되는 발전 단계를 거쳐 성장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어렸을 때 갖게 된 기본적인 음악 개념을 계속되는 경험을 통하여 점차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조기 음악 교육의 일환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아노 교육을 중요시해서 기초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아이들의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유년기에의 지능 개발과 함께 음악적 체험을 통해 어린이의 정신과 신체적 성장에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피아노 교육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감의 발달이 빨라지므로 절대 음감을 가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근육의 이완상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므로 바른 자세와 손 모양의 기초를 익힐 수 있으며 유연성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음악에 대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음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기 때문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익힐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음악활동을 다양하게 유도하는 기초가 된다.

여섯째, 많은 곡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악보의 음악을 이해하고 피아노 연습과 암기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요구됨으로 어린이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여덟번째, 자신의 연주를 표현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감과 발표력을 기를 수 있다.

아동은 하나에 전념해서 오래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아동기가 절대 음감을 가질 확률이 크고 음악을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으며, 음악적 향상도가 높기 때문에 조기 피아노 교육이 필요하다.

IV.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과적 지도방안

1. 피아노 조기교육을 위한 조건

1) 피아노 학습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 및 학습시간

피아노 교육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래를 잘 부르는가? 음악듣기를 좋아하는가? 음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가?

둘째, 한번에 10분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셋째, 아동이 자신의 작은 근육을 잘 조정하고 있는가? 아동에게 글씨쓰기, 이름쓰기 등을 가르쳤을 때 아동이 연필 등을 잘 놀릴 수 있는가?

넷째, 새로 배운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⁴¹⁾

이는 아동들에게 그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아제의 발달과정에서는 7세에서 11세까지의 시기를 구체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갖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므로 어린이 피아노 교육을 시작할 가장 적절한 때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아노 학습의 입문 시기는 다섯 가지 수를 알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하여 콧노래를 부르고 음악의 매력을 어느 정도 지각할 때에는 음악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해도 좋다. 그러므로 피아노를 이용한 음악의 기초학습은 우선 열 개의 손가락으로 건반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일과 악보 읽기가 가능해진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4세에서 7세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입문시기라고 본다. 4세에서 5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피아노 학습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때가 되면 손가락 같은 말초 부분의 활동이 왕성해지며 동시에 심리적, 정신적 작용으로서의 지각도 현저하게 발달한다.⁴²⁾

41) 김은영,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3-14.

42) [도입기 발달단계에 대하여], 음악교육, 1988, 11월호, p.85.

부모의 과욕으로 너무 이른 시기에 피아노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아동들로 하여금 음악을 회피하는 경향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발달이 진행된 만 4세에서 5세경에 피아노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주의력이 약해서 30분 이상의 집중력이 어려우므로 아동의 반응여하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주의력의 지속 시간은 흥미 있는 놀이의 경우 보통 3세 때는 5-13분, 4세 때는 6-20분, 5세 때는 13-24분 정도이기 때문이다.⁴³⁾ 장시간의 연습보다는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단시간에 올바른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습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보고 피아노를 치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사의 반주에 맞춘 아동의 노래 부르거나 이론공부, 또는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게하고 음악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동 스스로가 음악에 흥미를 느껴 피아노를 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호기심 유발이 중요할 것이다.

2) 피아노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

아동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 학습장은 호기심이 많은 아동들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적 학습을 경험하게 하여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리코더나 멜로디언, 리듬악기(탬버린, 캐스터네츠)등을 비치함으로써 악기 사용으로 인한 음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음악에 친근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흥미는 지도면 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의 기본자질

43) 세광출판사 편집부, [유아기에 보이는 집중력과 그 발달과정], 음악교육, 1990, p.49.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피아노 교육에서도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는 놀이와 공부가 분별되지 않는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미분화의 시기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는 단계이다. 음악교육이 유아가 음악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해·감득함으로써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피아노 교사의 지도 역할에는 악보를 가르치는 일 외에도 음감의 계발, 리듬감의 훈련 및 음악을 구성하는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의 학습, 학습자 자신이 음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음악적 창의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인간성의 향상이 되도록 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⁴⁴⁾

폭 넓고 창조적인 피아노 학습은 교사의 지도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도 할 만큼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피아노를 지도함에 있어서 아동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가르쳐야 한다. 주입보다는 유도와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피아노 학습 자체를 즐거움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기 피아노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훌륭한 품성과 함께 자기의 지식을 아동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둘째, 피아노 교사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음악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즉, 자신의 전공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도 경험을 넓혀야 한다.⁴⁵⁾

셋째, 늘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동을 요령 있게 다루는 것만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동과 더불어 연구하고 성장하는 지도 교사가 되어야 한다.

넷째, 지치지 않은 인내와 유모로서 집중력이 짧은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교면과 함께 음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성과 상상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자로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교육심리학자 데이비드 오수벨

44) 이현자, 「피아노 교육의 측면에서 본 교사의 자질」, 음악교육(겨울호), 1990, p.38.

45) 박찬석, 「피아노 교수학」, 서울 : 세광출판사, 1992, p.115.

(David Ausubel)은 “아마도 교사의 가장 중요한 성격의 특징이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학생들의 지적발달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⁴⁶⁾ 피아노 학습의 성패는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동 개개인에 맞는 학습과 지도 방법을 통해 유아가 음악에 흥미를 갖게 하고, 음악적 잠재력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르침에 있어서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4) 부모의 역할

아동교육의 일차적 환경은 부모의 교육적인 역할이다. 부모는 아동들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 동안 적극 협조해 주고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절대 지나친 강요나 억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피아노 학습에 있어 구체적인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둘째, 지도 교사를 신뢰하고 자녀의 학습정도나 태도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차기 교육의 디딤돌이 되도록 협조한다.

셋째, 형식적인 진도에 구애되지 않고 음악적 내용의 발전 심화에 주목한다.

넷째, 음악감상을 시킴으로 아동의 음악적 바탕을 튼튼하게 만든다.

다섯째, 어린이의 건강을 항상 보살필 것, 적당한 수면, 영양섭취, 운동 등에 항상 유의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항상 건강하고 명랑하며,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⁴⁷⁾

여섯째, 아동으로 하여금 항상 완만하고 올바른 인격자가 될 수 있게 모든 생활을 보살핀다.

일곱째, 피아노 칠 때의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

여덟째, 학습의 성장이 느리더라도 기다림의 자세를 갖는다.

아홉째, 지나친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고 칭찬을 해 줌으로써 동기유발을 일으키게 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46) 찰스 R. 호퍼, 「음악교육론」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9, p.24.

47) 박찬석, 전개서, p.123.

2. 피아노 조기교육의 올바른 지도방안

1) 피아노 교재의 선택법

피아노 교육에 있어 좋은 교재의 선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효과적인 피아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및 음악적 능력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아동의 특성에 맞게 교재를 택하여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피아노 학습을 위한 많은 교재가 출판되고 있지만 이 많은 교재 중에서 아동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피아노 교재를 선택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피아노 교재는⁴⁸⁾

첫째, 질이 높은 음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한 테크닉이나 문제점을 위한 보충학습 자료가 제공된 교재가 바람직하다.

셋째, 1도, 4도, 5도, 5도의 7화음과 같은 간단한 화음을 멜로디에 붙여 치거나 멜로디나 반주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치는 기능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음악의 이론과 기초는 체계적으로 충분히 소개되어야 하며 음악적인 경험이나 표현 기능의 견지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스케일이나 아르페지오 등의 충분한 연습 자료와 음악형식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악보는 분명하고 깨끗하게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어린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그림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한 곡이 사용되어야 한다.

교재의 선택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재가 되므로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 하며 교사는 자신의 기호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재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아동 개개인에 맞게 적절한 교재를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8) 성진희, 「포괄적 음악성 개발을 위한 효율적 지도 방법」, 음악교육, 1990, p.59-60.

2) 초견과 독보지도

초견이란 악보를 보고 처음부터 바로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초견 능력은 연주가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것은 선천적인 소질에 의한다기보다는 후천적인 연습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초견 능력의 향상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데, 그 이유는 초견은 한 작품을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초견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음악적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능력은 기억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음악적 기억력은 그것이 최상으로 발달되어졌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초견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작품 전체에 대한 즉흥적 반응을 깨닫게 한다. 둘째, 건반에 대한 감각을 발전 시킴으로써 촉각적 또는 동적 기억력을 돕는다. 셋째, 음악의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한 기억력을 가동시킴으로써 한 곡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반응하게 된다.⁴⁹⁾

초견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베스틴은 이렇게 제시한다.

첫째, 치기 전에 악보를 찬찬히 공부하는데 특히 박자와 조에 유의한다.

둘째, 리듬을 손뼉으로 치면서 익힌다.

셋째, 곡을 연주전에 그 곡의 조의 음계를 연습하여 조성이 귀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넷째, 눈은 악보에만 집중시킨다.(손은 저절로 건반을 찾아가도록)

다섯째, 화음을 읽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저음에서 고음으로)

여섯째, 손보다 눈이 앞서가야 한다.

일곱째, 손은 필요한 경우만 움직인다.

이처럼 초견을 위해서는 악보를 정확히 보는 법이 중요하다. 악보를 보며 머리로 상상하여 연주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에 맞는 운지법을 사용하여 머릿속으로 악보를 그려 나가야 한다.

초견을 연습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49) Seymour Bernstein, 「With Your Own Two Hands」, 백낙정(역), p.6.

첫째, 템포를 확인한다.

둘째, 조성 및 조성의 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박자 및 박자의 변화를 확인한다.

넷째, 음자리표를 확인한다.

다섯째, 곡의 구조를 살펴본다.

여섯째, 리듬과 선율 등을 살펴본다.

일곱째, 악곡의 조의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는 물론 관계단조도 확인한다.

여덟째, 모든 음정을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한다.

이 같은 점들을 유념하여 초견을 하게 되면 빠른 향상을 보일 것이다.

초견은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습하는 학생이 인내를 가지고 임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독보란 악보를 보고 즉시 그 악보에 적힌 선율, 화음, 음정, 리듬 따위를 실제의 악음(樂音)으로 재현하여 연주하는 일이며 악보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아무리 음악적 기초 상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독보를 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보는 처음부터 악보를 정확히 보며, 읽는 법이 중요하다.

독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악보나, 음악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 정도의 리듬훈련이 필요하며, 피아노 건반의 위치를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악보를 볼 때 제대로 보게 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나중에 악보를 볼 때 제대로 곡을 볼 수 있고 파악하게 된다. 아동은 배워서 이미 익힌 곡에 대한 잘못된 독보는 고치기 힘들므로 교사가 처음부터 독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사는 아동들로 하여금 음악을 많이 들어서 청음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아동이 자주 악보를 접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고 건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피아노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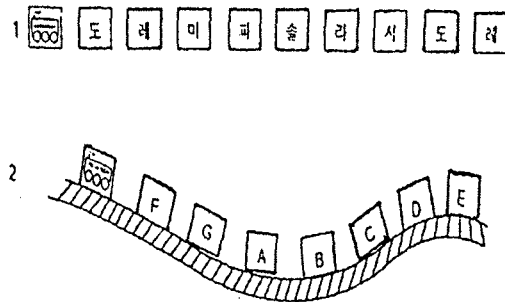
초견능력과 독보력에 있어 리듬감과 템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개 음표를 배우면서 음표도 함께 배우게 되는 데 이 때 리듬 치기와 리듬 읽기로 나누어서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8분 음표를 배우면서 반박자 라는 뜻과 리듬 치기 \, 리듬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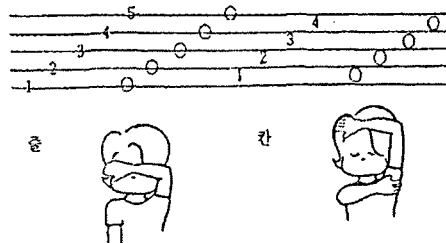
따 등 이런 전체의 문장으로 학습하는 것이 기억하기에도 효과적이다. 음이름(도레미파솔라시, 다라마바사가나, CDEFGAB)을 익히는 것은 오선지에서 이루어져도 되지만 때로는 먼저 이름을 익히는 것으로 시작을 해도 된다. 이 과정을 조금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 각 음이름마다 고유의 색을 지정해 주거나 또는 기차놀이와 같은 게임을 할 수도 있다. 기차놀이가 좋은 이유는 음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효과적인 연습이기 때문이다.

(그림 2)⁵⁰⁾



기차의 기관차를 그려놓은 카드와 각각의 음이름을 쓴 예쁜 카드를 여러 세트 준비한다. 맨 앞에는 기차와 기관차를 그려놓은 카드를 놓고 선생님이 첫 기차를 선택하여 기관차와 연결하면 그 뒤를 순서에 맞게 학생이 연결하는 것으로 여러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음이름을 익히면서 줄음과 칸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아동들이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취해주면 더욱 재미있어한다.

(그림 3)⁵¹⁾ 5개의 줄과 4개의 칸 익히기



팔이 권굴의 중간을 지나가는 상태 두 팔 사이에 얼굴이 들어간 상태

50) 월간 「피아노」, 1998, 5월호, p.123.

51) 앞의 책, p.123.

팔이 줄이고 얼굴은 음표라고 가정을 하고 위와 같이 보여준다.

3) 몸의 자세와 손 모양과 손가락 훈련

1. 몸의 자세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들에게 좋은 자세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앉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피아노 공부를 길게 할 수 없으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본인의 학습 진도에도 다소 지장을 줄 수 있다.

우선 몸의 중심은 피아노의 중심이 되는 'E음' 이나 'F음' 에 앉게 한다.⁵²⁾ 허리를 곧게 하고 다소 앞으로 기울는 자세는 좋은데 뒤로 기울거나 앞으로 지나치게 숙이면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 쉽게 피로해지게 된다.

의자의 위치는 의자의 1/2 또는 1/3 정도로 앉는 것이 좋다(그림4-iii). 의자에 너무 깊이 앉으면(그림4-i) 건반을 치기 위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발을 밟는 힘이 약해져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다. 반면 너무 앞쪽에 앉으면(그림4-ii) 발에 힘이 들어가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므로 피아노를 치는 자세가 딱딱해지고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의자의 높이는 양팔을 건반 위에 놓았을 때 수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의자의 높이가 알맞게 이루어져야 좋은 자세와 손의 지탱이 가능하다.⁵³⁾

두 발은 안정감을 위하여 바닥에 닿아야 하고, 이때 작은 아동의 경우는 보조발판이나 방석 등을 사용해서 바른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 바닥을 평행으로 약10cm정도 벌리고 오른발은 오른쪽페달에 왼쪽 발은 왼쪽 페달 가까이에 두어 언제든지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⁵⁴⁾

피아노 학습시 교사는 아동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야 하며 아동 스스로가 신체에 알맞게 조절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52) 송정이, 상개서, 서울 : 음악춘추사, 2001, p.24.

53)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지도법」, 서울 : 음악춘추사, 1994, P.72.

54) 박찬석, 전개서,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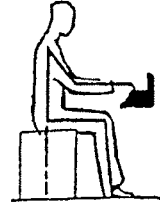
(그림 4) 피아노에 앉는 자세



(그림4-i)
깊숙이 앉은 자세



(그림4-ii)
발에다 몸무게를
의지한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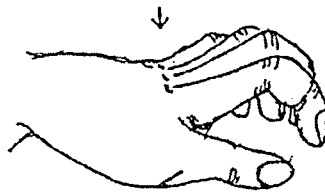
(그림4-iii)
몸무게가 의자에
고정된 자세

2. 손 모양과 손가락 훈련

학습하는 아동이 어리다고 손 모양을 적당히 놓아두면 나중에 고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사가 잘 지도해 주어야 한다. 손의 위치는 손을 건반으로부터 약 2인치 위에 평행이 되게 준비하고 힘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로 주먹을 쥐고 난 다음 그것을 자연스럽게 펴서 작은 공이 하나 들어갈 만한 정도의 모양으로 손을 펴고, 손가락은 건반 위에 서 있는 자세로 구부린다.

이 때 손바닥이 너무 흰건반에 다가가게 되면 손등 관절이 내려앉듯 패이기 때문에 손등관절이 다소 올라오는 듯이 아치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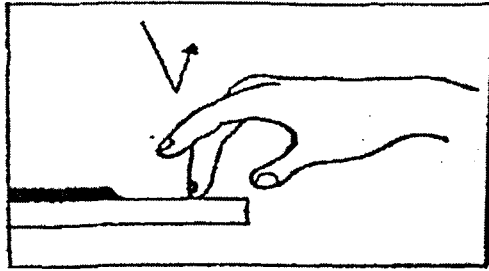
(그림 5) 손등 관절이 패인 바르지 못한 손 자세⁵⁵⁾



55) 박서미, “조기피아노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성”,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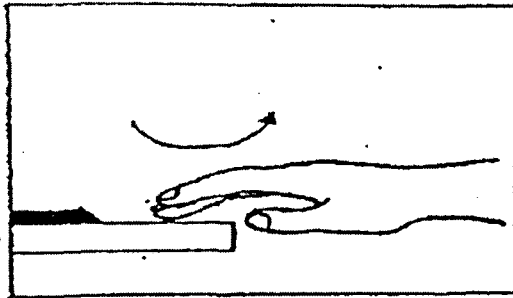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한 소리를 얻고자 할 때 손가락을 세우고 쳐야 되는데 빠르고 정교함을 요하는 섬세한 패시지를 할 때 손가락의 관절을 모두 구부리고 손끝으로 타건한다. 스타카토와 스타카티시모, 액센트와 논 레가토 등은 세워서 연주한다.(그림 6)

(그림 6) 세우기⁵⁶⁾



부드러운 음색을 얻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조금 펴고 지문이 폭신한 부분으로 타건한다.⁵⁷⁾(그림 7)

(그림 7) 뉘우기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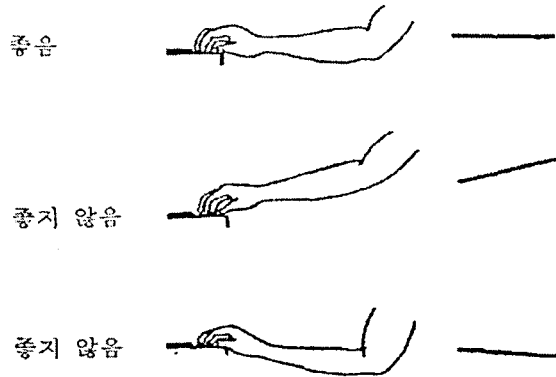
56) 서정영,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지도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10.

57) 이태유미꼬외, 「하이비스 4권」, 세광출판사, 1996, p.18.

58) 서정영, 앞의 논문,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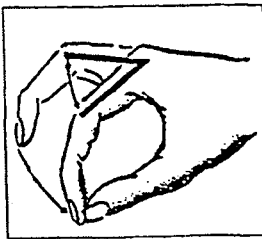
손등은 손목보다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되고 손등을 너무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 없는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그림 8)

(그림 8)59) 손가락과 손목의 모양 세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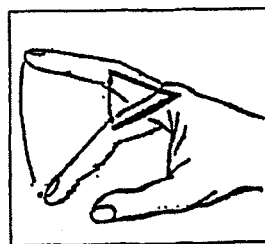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이 짧은 경우 엄지손가락의 길이와 다른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하므로 손가락을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빨리 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긴 손가락의 경우는 엄지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구부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연주에 따라 터치법에 의해서 손가락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빨리 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구부린 모양이 좋고 부드러운 음색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편한 모양으로 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⁰⁾

(그림 9) 빨리치는 경우



부드러운 음색을 내는 경우



59) 박서미, “조기피아노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성”,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27.

60) 허은진 “아동기 초기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4, p.85.

고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손가락 훈련이 필요하다.

각 손가락의 성질을 살펴보면 엄지손가락은 둔하고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빨리 치는데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민성을 키우거나 민첩한 손가락이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손가락은 강하고 재빨라서 중요한 손가락으로 생각되며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긴 손가락이기 때문에 셋째 관절이 잘 움직여 준다. 넷째 손가락은 약하고 둔하기 때문에 운지법에서도 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훈련으로서 다른 손가락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손가락은 근육이 없는 손가락으로서 옥타브를 치는데 주 역할을 하는데 폭이 좁고 가늘고 짧아 터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도 각별히 힘을 길러주는데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선 건반을 치기 전에 반드시 음표에 대한 박자와 손가락 번호 손과 손목의 위치를 정확히 익히게 한 다음 건반을 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손가락 훈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기본 자세는 힘이 전달되는 모든 신체부위가 자연스럽게 헛된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아동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단계적으로 간단한 손가락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⁶¹⁾

4) 시창과 청음

시창과 청음은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어 저서는 안되며 둘 중 어느 것이 먼저라고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음을 들어야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노래를 불러 봄으로써 그 음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써 음을 보고 소리 낼 줄 알아야 하고 들으면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시창과 청음은 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또한 시창과 청음 훈련을 통해 음감이나 리듬감 등의 전반적인 음악성도 향상될 수 있다.

① 시창

시창이란 처음 주어진 악보를 읽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61) 정선영,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에 있어서의 올바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31-32.

어린이들은 대부분 악보를 보고 가락과 리듬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음악교육과 피아노교육이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며, 이는 현재의 피아노교육이 음악의 포괄적 교육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 테크닉만을 중시하는 단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⁶²⁾

시창훈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리듬과 음정에 관한 기본 학습이 있어야 하며, 시창훈련에 따라오지 못하는 아동들은 리듬과 음정을 따로 연습하고 반복훈련 시켜야 시창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② 청음

청각이 뛰어난 아동들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고 화음의 종류와 특징, 곡의 변화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청음훈련에는,

첫째, 음정의 정확한 인식이다. 교사가 하나의 음을 들려주고 어린이들에게 그 음을 맞추게 하여 들려 준 음보다 높거나 낮은 음정을 쳐보도록 하게 한다.

둘째, 리듬의 정확한 판단력이다. 교사가 리듬을 불러주고 4분음표인지 8분음표인지 길이의 판단력과 박자를 세어보게 한다.

셋째, 음정과 리듬을 오선 위에 기록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간단한 단선율, 멜로디를 받아 적게 하여 음과 리듬을 쓰게 하는 것이다.⁶³⁾

5) 창작 및 즉흥 연주

즉흥연주는 음감이 아닌 꾸준한 연습에서 나온다.

스케일과 패턴, 코드톤 연습을 꾸준히 하면 누구나 즉흥연주는 할 수 있다.

즉흥연주(improvisation)는 준비 없이 행해지는 즉석연주(extemporization)라는 단어와 의미상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며, 미리 준비된 악보나 스케치(암보도 포함)에 의하지 않고, 연주자에 의하여 직접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주를 말한다.⁶⁴⁾

62) 김인애,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55.

63) 김수희, “이상적인 피아노 기초 교육의 방향”,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17.

64) 「음악대사전」, “즉흥연주” 항목 서울 : 세광출판사, 1990.

즉흥연주는 음악행위의 본질적 3요소인 작곡, 연주, 감상 중 작곡과 연주의 2요소가 결합된 행위라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65)

음악의 구성력과 창조적 표현능력이 요구되는 면에서는 즉흥연주가 일반적인 작곡(composing)행위와 비슷하기는 하나 작곡은 이론적 원리에 의해 치밀한 계획과 구성으로 음악적 내용을 조직적으로 전개시켜 기본체계를 사용하여 악보 상으로 소리를 상징적으로 창조해 내는 것이다. 그 반면 즉흥연주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영감을 음악적 감각을 토대로 악기를 통해 실제소리로서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행위이다. 창의적 활동은 아동들이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작고하는데 필요한 노력도 알게 해 줄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재능을 자기 나름대로 펼칠 수 있게 도와주므로 교사는 창작지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66)

창작지도의 첫 단계는 모방성의 지도이며, 음 자체의 모방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리듬을 모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로는, 창조적 표현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즉흥적 표현 능력의 배양이며, 셋째로는 풍부한 음악적 경험이다. 잘 정선된 음악의 풍부한 체험 속에서 음악을 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 학습의 기초가 되는 독보력과 기보력 배양이다. 이것은 창작지도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능력이며 창작 지도를 통하여 더욱 신장될 수 있는 것이다.67)

Donald Deneger는 즉흥연주의 교육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68)

첫째, 한 학생에게 짧은 가락을 노래하게 한 후 건반으로 연주하게 해 볼 것
둘째, 한 학생에게 짧은 가락을 즉흥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학생에게 그에 대응하는 가락을 연주하도록 시킬 것

셋째, 한 학생에게 8분, 4분, 2분 음표만을 이용해 2박이나 4박으로 된 4 소절을 즉흥 연주하게 한 후 다른 학생에게 그 즉흥 연주된 곡을 반복시키고 8

65) 이연경, 「피아노 지도의 즉흥연주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10」, 음악교육연구, 1991, p.37.

66) 이경옥, “피아노 레슨을 통한 즉흥연주 능력향상 지도안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5.

67) 길애령, 임미경, 전개서, 1996, p.123.

68) 김수희, “이상적인 피아노 기초교육의 방향”,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22. 재인용.

분, 4분, 2분음표 만을 이용해 대응하는 곡을 즉흥 연주하게 할 것

즉흥연주는 어린 초보학생이나 전공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인데 교양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음악창조의 만족감과 함께 풍요로운 음악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주게 되고 또한 장래의 전문 연주가가 될 학생은 연주의 표현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⁶⁹⁾

아동들에게 창작과 즉흥연주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 즉 천둥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파도치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를 피아노로 표현하게 하며, 어떤 작은 주제를 쓰고 그것을 변주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아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교사의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

69) 이경옥, 전개서, 1998, p.13.

V. 결론

여기까지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음악 교육 중 피아노 교육은 아동들이 음악 교육 가운데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피아노 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음악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단순히 피아노 음악에 그치지 않고 음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의 작곡가이며 음악교육가인 코다이는 4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이야말로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불어넣어 주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확신했으며, 아동의 일생에서 결정적인 음악적 경험은 6세에서 16세 사이에 얻어지며, 이때가 나이 들어서 보다 쉽게 배우고 재능도 잘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피아노 교육은 음악 교육 중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피아노를 학습하는 아동들은 음악적 체험을 통해 음악적 감각을 높이고, 아동들의 정신과 신체적 성장을 자극하여 인격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전인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음악교육은 전문음악인의 양성이 아닌 아동 스스로가 음악을 체험하고, 느끼며 음악을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음악의 기쁨은 경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기 피아노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교육적 잇점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기 피아노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 개개인에 맞는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음악적 능력개발 및 정서와 지능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전인적인 교육이 될 것이며, 음악적 성숙을 가져다주며, 음악적 감각을 높이는데 효과적 일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기에 앞서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길애령, 임미경편저, 『초등음악 지도법』, 서울: 수문당, 1996.
- 김영희, 이은화 공저,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 교문사, 1997.
- 김혜자, 『피아노 음악』, 청우출판사, 1985.
- 류덕희, 『음악 교육학개론』, 서울: 학문사, 1973.
- 박성은, 『유아음악지도』, 서울: 학문사, 1983.
- 박영수, 『피아노 주법연구』, 서울: 세광출판사, 1990.
- 박영신, 『아동사고의 발달』, 교육과학사, 1993.
- 박찬석,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 박찬석, 『피아노 교수학』, 세광출판사, 1992.
- 성경희, 『음악과 교육론』, 갑은출판사, 1998.
-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1986.
-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지도법』, 음악춘추사, 2001.
- 안재신, 『유아음악교육』, 교육과학사, 1996.
- 유기섭, 『교육심리학』, 동문사, 1993.
- 유덕희, 『유아 교수법』, 정음사, 1976.
- 유덕희, 『유아발달과 음악교육』, 개문사, 1983.
- 이견우, 이순영 공저, 『유아음악교육』, 배영사.
- 이노우에 나오유키, 『피아노 주법』, 태림출판사, 1999.
- 이연경, 『피아노 지도의 즉흥연주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10』, 음악교육연구, 1991.
- 이용일, 『음악 교육학 개설』, 현대악보 출판사, 1989.
- 이전영, 『창조적 피아노 연주법』, 예성출판사, 1997.
- 이철구, 이양 공저, 『심리학으로 본 음악교육』, 교육과학사, 2001.
- 이홍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1990.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정세문, 기청, 『유아의 음악 교육』, 서울: 창지사, 1985.
- 정세문,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 창지사, 1987.
- 진수장, 『음악교육사전』, 동경: 동경관 출판사, 1960.

-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출판사, 1990.
-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1988.
- 최시원, 『음악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라출판사, 1996.

2. 번역본

- 찰스 R. 호퍼, 『음악교육론』 안미자(역), 이화여대출판부, 1989.
- Erzebet Szony 『코다이 음악 교수법』 조흥기(역), 1994.
- 맥스 W. 캠프, 『피아노 연주법』 안미자(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r 공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김정민 (역), 학지사, 2006.
- Seymour Bernstein, 『With Your Own Two Hands』, 백낙정(역).

3. 논문

- 김분희, “음악교육 이론을 위한 조기 피아노 교육과 그 지도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수희, “이상적인 피아노 기초 교육의 방향”,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은영,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인애,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류수경,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지도 방법”,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2.
- 박서미, “조기피아노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성”,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옥경, “조기피아노 교육의 올바른 지도방법”,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서정영,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지도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조미화, “효과적인 피아노 조기교육을 위한 지도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선영,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에 있어서의 올바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윤숙,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하진미, “피아노 초기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계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허은진 “아동기 초기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4.

4. 정기 간행물

- 월간 『피아노 음악 5월호』, 서울: 음악춘추사, 1998.
- 월간 『피아노 음악 11월호』, 서울: 음악춘추사, 1998.
- 성진희, 『포괄적 음악성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음악교육, 1990.

5. 교본

- 이데유미꼬외, 『하이비스 4권』, 세광출판사, 1996.